

중·미 안보 갈등과 한반도 : 사드(THAAD) 배치 문제를 중심으로

채소현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중국학과 석사과정)

목차	
I. 서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2. 연구범위 및 방법 II. 사드 배치로 드러난 중·미 갈등 1. 미국의 입장 2. 중국의 입장	III. 사드 배치에 관한 한국의 입장 1. 강경론(찬성) 2. 신중론(반대) VI. 한반도 안보를 위한 방안 1. 자주적 안보 2. 사이버 안보 V. 결론

논문초록
<p>본 논문에서는 중국과 미국의 군사 방면 견제가 뚜렷이 드러나는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를 통해 두 강대국의 갈등과 이로 인한 한국의 안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전략적인 선택이 필요함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사드 배치에 관련 한 미국과 중국의 입장을 서술하였다.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방어를 위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한다고 주장한다. 중국은 사드와 함께 배치되는 레이더가 자국을 견제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며 한국에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 한반도는 두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지역으로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 첨예하게 드러나는 지역이다. 사드 배치에 대한 한국의 선택이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 나아가 한반도의 미래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특히 한국은 중국, 미국과 많은 교역을 하는 만큼 군사 방면에서의 선택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p>

주제어 : 중·미 갈등, 미사일 방어, 사드(THAAD), 한반도 안보

I. 서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최근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드란 고(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¹⁾로 THAAD미사일이라고 한다. 장거리 미사일, 이동발사대, 정보/통신/전장관리 시스템 그리고 레이다 등으로 구성된다. 길이 6.17m, 직경 34cm로 최대 속도는 마하 8.24에 달하고 이것은 소리보다 8배 이상 빠른 속도이며 한 발당 가격은 100억에서 110억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²⁾ 사거리는 200km로 고도 40km~150km의 미사일 요격이 가능하다. 보통 미사일은 적 항공기와 직접 부딪치거나 가까이 접근한 뒤 탄두가 폭발하는 방식으로 적 항공기를 파괴한다. 반면 사드는 발사된 후 미사일의 앞부분에 있는 페이로드³⁾가 열리면서 킬 비히클(Kill vehicle)⁴⁾이 나와 적 미사일과 직접 충돌해 파괴하는 '히트 투 킬(hit-to-kill)'방식이다. 이것은 보통의 미사일 요격 방식보다 훨씬 적중률이 높고 파편이 남지 않아 아군에게는 전혀 피해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⁵⁾ 또한 미사일과 함께 배치되는 레이다를 통해 표적을 조준할 수 있기 때문에 1m 이내의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어서 표적 적중률이 매우 높으며 탐지 범위는 반경 1,200km에 달해 한반도에 배치될 경우 중국의 북양함대, 산둥반도, 상하이, 더 멀리는 베이징까지 탐지할 수 있다.⁶⁾

미국은 한국 미사일은 북한 미사일에 대응할 만한 정도로 구축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 국방부가 처음에는 동의한다고 밝혔지만 여론 악화로 그러한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가 후에는 검토 중이라고 의견을 바꿨다. 이에 대해 중국은 사드의 규모와 성능은 북한의 미사일을 방어하기 보다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한국 내에서는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이 첨예하게 나뉘고 있다. 찬성하는 입장은 아직 한국의 국방 수준은 북한의 공격을 감당할 만한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며 미국과의 지속적인 우호관계를 위해, 한반도의 안보를 위해 사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대하는 입장은 사드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배치하는 비용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도입을 반대한다.

역사적으로 한반도는 지리적 특징 때문에 주변 4개국(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의 이해관계 속에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지내왔다. 특히 1950년 한국전쟁에 미국과 중국의 개입으로 한반도에서 두 국가의 패권 경쟁이 계속 되었고, 그 결과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미국과 한국의 동맹, 중국과 북한의 동맹체제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냉전의 상징이다. 1992년 탈냉전 이후 지속되는 분단 된 상황 하에서 한국이 중국과 수교를 맺으면서 동아시아에서 한반도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
- 1) 미사일 방어는 일반적으로 적국이 자국을 향해 발사한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해 파괴하는 방어 전략을 말한다. 미사일 방어라는 용어는 최근 미국이 MD(Missile Defense)라는 명칭으로 고유 명사화함에 따라 미국이 추진하는 대륙간 탄도탄(ICBM :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에 대한 요격활동을 위주하고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김익근,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2011)
 - 2) 유용원, 「사드 논란의 진실: 중국의 제1 공격목표가 될 만큼 위협적인가? 北핵탄두 미사일 요격용으로 효과적인가?」, 주간조선 조선뉴스프레스, 2014.10.06
 - 3) 미사일에 탑재되는 탄두.
 - 4) 미사일에 탑재되어 있는 요격체.
 - 5) 유용원, 「사드 논란의 진실: 중국의 제1 공격목표가 될 만큼 위협적인가? 北핵탄두 미사일 요격용으로 효과적인가?」, 주간조선 조선뉴스프레스, 2014.10.06
 - 6) <http://blog.naver.com/hhj666?Redirect=Log&logNo=30014123997> (검색일 2014.11.27)

남북의 분단 아래 중국과 북한의 지속적인 동맹관계와 중국과 미국이 한국의 주요 무역상대국이 되면서 21세기의 한반도는 특수한 상황이 되었다. 2012년 북핵문제와 센카쿠열도, 다오위다오 등 중국의 영토분쟁을 두고 미국이 개입함으로써 두 국가의 긴장 관계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 이러한 갈등 요인은 두 국가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한반도에서 불붙기 쉽다.⁷⁾ 한국이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두 강대국에게 위협을 받게 되는 원인이며 사드 배치 문제에 신중해야 하는 이유이다.

한반도 안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이다. 중국은 지속적인 성장으로 인해 아시아에서 패권을 장악했고, 미국이 이를 견제하며 Pivot to Asia 전략을 펼쳐 아시아로의 재진출을 통해 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다시 확대하려하고 있다. 이 두 국가의 입장에 따라 한국의 안보 위협이 좌지우지 될 수 있기 때문에 두 국가의 의견이 대립되는 사드 도입에 있어서 한국의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미국이 한국에 고(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를 배치하겠다는 의견을 비침으로써 그에 대한 중국의 반응 및 한국 내 반응을 살펴보고 이것이 한국의 안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고찰한 후 한반도의 평화로운 미래를 위한 선택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에서의 미국과 중국의 견제, 즉 한반도가 분단되어 있는 상황을 이용해 미국과 중국이 군사·안보 방면에 있어 갈등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고찰해볼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의 아시아 재 균형정책(Pivot to Asia)과 부상하는 중국의 패권경쟁이 첨예하게 드러나는 한반도로 범위를 한정하고, 현재 군사·안보 방면에서 갈등으로 부상하고 있는 사드 문제를 통해 드러나는 두 국가의 견제 방식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려고 하는 목적과 그 목적에 대한 타당성을 알아보고 중국은 이에 대해 어떠한 논리로 강하게 반대 의견을 펼치는지 고찰해볼 것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한국의 안보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한국의 선택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때문에 한국 내에서 첨예하게 나뉘는 사드 배치 찬반 의견에 대해 연구해 보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안보 측면으로 어떠한 방면의 역량을 키워야 하는지도 언급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을 통해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성되었다.

제 1장 서론에서 연구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 서술하면서 미사일 방어와 사드에 대해서 알아봤다. 제 2장에서는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려고 하는 목적과 중국이 이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는 원인에 대해 고찰해보고, 이어서 제 3장에서는 이러한 상황 하에서 한국 내에서 사드 도입을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에 대한 의견을 자세히 연구해볼 것이다. 제 4장에서는 한반도 안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마지막 제 5장 결론에서는 2장, 3장 그리고 4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의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며 이것은 전략적인 선택이 되어야 함을 제기한다.

7) 김태완, 『미국과 중국사이의 한국 : 역사의 교훈 서설』, 영남국제정치학회보 제 16집 1호, 2013, pp.77~99

II. 사드 배치로 드러난 중·미 갈등

1. 미국의 입장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겠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로버트 워크 미국 국방부 부장관이 2014년 9월 30일 “괌에 배치된 미국의 고고도(高高度)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용 요격 미사일 포대를 한국에 배치하는 방안을 조심스럽게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미국외교협회(CFR)주최 간담회에서 “1개 포대가 북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괌에 배치되어 있는데, 세계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이 포대를 한국에 배치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사드 배치가 맞는지 결정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⁸⁾ 이에 대해 한국 국방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미국의 공식적인 요청이 없었으며 미국 국방부와 협의한 적도, 협의 중인 바도 없다고 밝혔고, 미국 국방부 관계자 또한 사드 해외 추가 배치와 관련해 한국의 협의를 가진 바 없다고 말했다.⁹⁾

미국과 한국이 사드 배치에 대해 협의 한 적이 없다고 하지만 미국이 한국에 MD를 구축하려 하는 의지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를 위해 미국은 사드를 배치하려 하는 것이고, 미국이 한국을 중심으로 사드를 배치하려는 이유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¹⁰⁾ 위협을 들고 있다.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 군사령관은 사드의 한반도 전개와 관련하여 “사드 배치는 미국이 추진하는 부분이고 또 개인적으로 요청을 한 바 있다.”며 “사드는 굉장히 방어적인 체계이고 단순히 한국 방어에 중점을 두고 배치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만약 북한이 한국을 향해 스킵트제열의 단거리 지대지 탄도 미사일(사거리300~500km)이나 노동 계열의 중거리 지대지 탄도 미사일(사거리 1,300~1,500km)을 발사한다면 이것을 ‘사드’로 요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¹¹⁾

한편, 미국은 2014년 10월에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 연기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명박 정부 때에 2015년 까지 연기했었고 이번 박근혜 정부에서 2020년대 초(2022년)까지 연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¹²⁾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존 헨리 소장(전 국방부 부장관)은 한국이 강한 군사력을 가졌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전작권을 이양해야하지만, 한국이 안보역강화를 위해 투자를 하는지, 안보 환경에 구조적인 변화가 이루어 졌는지, 전작권 이양으로 한국 안보가 약해지지 않는지 등의 조건이 맞는 상황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¹³⁾ 이러한 조건은 동북아에 첨단 정보·감시 장비와 미사일 방어망(MD)을 구축하려는 미국의 이해관계와 맞아 떨어진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한국은 감시·정찰·탐지 능력을 키워야 하는데, 길 체인이 그 역할을 다 못할 것이라 예상되는 가운데 이러한 무기를 미국에서 들일 수밖에 없다. 미국은 그 동안 본토 방어를 위해 MD를 구축하면서 한국에도 같이 하자고 수차례 제안했지만 천문학적인 군비 예산으로 인해 한국은 동참하지 않았다. 하지만 전작권 전환을 위해

8) 윤정호, "미 국방부장관 "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포대 한국배치 검토"", 조선일보, 2014.10.1

9) YTN, "국방부 "미국과'사드'배치 협의한 적 없어"", YTN·YTN PLUS, 2014.10.1

10) 탄도미사일은 일반적으로 미사일의 사정거리에 따라 나뉜다. 사정거리 800km까지를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이라고 하고, 사정거리 800~2,400km까지를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BM), 사정거리, 2400~6500km까지를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사정거리 6,500~15,000km 이상을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로 분류한다. 하지만 다른 국가에서 자국의 영토로 미사일이 도달하는 사거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미사일 분류는 국가마다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다.

11) 장철운,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THAAD):'사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IFES현안진단, 2014.

12) 구체적인 기한은 정해져있지 않지만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가 완성되는 때를 전환 조건으로 하며 그 때가 2020년대 초로 예상하고 있고, 한국은 구체적으로 2022년으로 완성 시기를 보고 있다.

13) 박현, "'한국군 군사능력'내세워 사드 한반도 배치 엿볼듯", 한겨레뉴스, 2014.11.04

서는 돈을 투자해 미국의 탐지·정찰 무기를 사들여야 한다. 이것은 최근 국방비를 대폭 축소한 미국의 입장에서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한국에 MD를 구축하는 좋은 수단이다.

또한 이것은 아시아로의 재진출(Pivot to Asia)을 추진하고 있는 미국이 '신형대국관계'를 내세우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도구이다. 아시아에서 패권을 가지려고 하는 것과 괌과 일본, 그리고 한국에 MD를 구축하는 것은 중국이 아시아에서 패권을 가지는 것을 경계하고 중국이 가진 대륙간 탄도미사일 동풍-31, 동풍(東風)-4114이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동풍 탄도 미사일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사드를 배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중국의 지속적인 군비 확장과 군 현대화 정책에 대한 대응으로 더 적극적인 아시아로의 진출과 아시아에서의 MD구축을 확대 하고 있다.

2. 중국의 입장

중국은 미국의 한국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해 강경하게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 특히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 연기와 맞물려 미국의 사드 배치에 대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5월 29일 관영 신화통신은 "한국이 큰 '경제체(중국)'의 반대를 무시하고 MD네트워크에 유혹돼 넘어간다면 가장 빠르게 발전하는 중국과의 관계에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발표했다. 9월 18일 환추왕 논평에서는 "사드 배치는 한반도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형성되고, 한반도의 긴장 정세를 가중시킬 것"이라 밝혔다. 10월 10일 당 기관지 인민일보 전 국제부장은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MD)를 배치해 중국에 피해를 끼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강한 어조로 주장했다. 중국은 사드와 함께 구성되는 '엑스밴드레이더(X-band radar)' 때문에 한국 사드 배치에 반대 하고 있다.¹⁵⁾ 사드는 요격 미사일 무기체계이기 때문에 방어 미사일이 발사되려면 레이더 시설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드 체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레이더망인 '엑스밴드레이더(X-band radar)'가 함께 들어올 수밖에 없다. 사드가 한국의 어느 지역에 배치될 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중국 바로 앞마당인 한반도에 레이더망을 설치하는 것은 중국을 언제든지 감시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¹⁶⁾ 엑스밴드 레이더의 탐지 거리는 1000~1800km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다. 만약 이 레이저가 서해안에 배치될 경우 중국의 상하이(上海), 톈진(天津), 다롄(大連)은 물론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의 발사를 초기 단계에서 탐지할 수 있다. 또한 대만 문제에 있어서도 미국의 항공모함 접근을 저지할 수 있는 중국의 미사일 공격을 무력화 할 수 있는 역량을 배가시켜 줄 것이다. 실제로 미국이 엑스밴드 레이더의 백령도 배치를 한국 정부에 비공식적으로 요청했으나 중국 측의 반대를 우려해 거절한 적이 있다.¹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내 지속적인 사드 배치 여부 논란이 있음에 따라 2014년 8월 25일 오전 권선강 중국국제문제연구원 부원장, 위사오화 연구원, 자사오둥 박사 등 6명이 참석한 중국 중국국제문제연구원 간담회에서 중국은 한국에 사드가 도입되는 것을 반대하며 사드를 배치

14) 동풍(東風) 미사일 : 중국이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를 고려해 개발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다. 동풍11(사거리 300km), 동풍15(600km), 동풍21(1800km), 동풍25(2300~4000km), 동풍31(8000~1만2000km)에 이어 동풍-41까지 진화했다. 동풍-41은 사거리는 1만2000~1만5000km 으로 세계에서 가장 사거리가 긴 미사일이며 3단계 고체 추진제 로켓을 이용한다. 차량이동식 발사대에 장착되고 100km 상공까지 올라가 비행하다 목표물을 타격하며 10개의 핵탄두를 실을 수 있다. 한 시간 안에 MD 뚫고 미국 본토 요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5) 순정우, "中, 사드 韓배치에 신경질적 반응 이유는...", 뉴데일리, 2014.11.10

16) 홍세미, "윤후덕, 사드 배치는 미·중·러와 얽혀있는 사안", 시사ON, 2014.10.19

17) 김흥규, "사드 배치는 국제 이슈, 미·중·러 타협 유도가 우선", 중앙SUNDAY 401호, 2014.11.16

하는 경우 중국과의 관계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밝혔다.¹⁸⁾ 또한 2014년 11월 14일 동아시아연구원과 국내 기업인들이 서울 조신히호텔에서 개최한 '지구넷 21'포럼에서 추귀홍 주한 중국대사가 미국이 한국에 배치 추진 중인 사드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포럼에 참석한 국내 인사의 사드 배치문제로 인한 한국의 입장우려에 대해 중국의 입장을 밝혀달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사드의 한국 내 배치에 대해 매우 우려하는 입장이다. 사드는 북한 핵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고 본다. 사드가 커버하는 범위는 굉장히 넓다. 즉 한반도를 훨씬 넘어서는 범위를 커버한다."며 반대 이유를 밝혔다. 이것은 중국의 고위 관리가 국내에서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처음으로 공개 발언한 것으로 더욱 강한 어조로 의견을 드러내고 있다.¹⁹⁾

미국은 아시아 국가들과 동맹을 맺고 MD를 구축 등의 방식을 통해 중국에 포위, 압박 전략 외교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아시아 진출 전략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느끼고 있으며 지속적인 군비 확장과 미사일 방어를 위한 무기 개발 및 도입으로 미국의 MD구축에 대응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사거리 400km의 첨단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인 S-400²⁰⁾을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미 '미국 항공모함 킬러'라고 불리는 동평 21D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S-400까지 보유한 중국은 미 항공모함에 대한 최고 성능의 창과 방패를 모두 보유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S-400을 중국 남부 푸젠 일대에 배치할 경우 다오위다오와 대만 전역을 사정권에 둘 수 있다.²¹⁾

Ⅲ. 사드 배치에 대한 한국의 입장

1. 강경론(찬성)

1) 한반도 안보의 최우선

"사드 논쟁의 핵심은 한국의 안보이며 북한의 위협을 막기 위해서 사드나 동급의 미사일 방어망을 빠른 시일 내에 빌려서라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북한의 노동 미사일에 핵을 장착하여 쏘는다면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파괴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은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해 북한의 핵 장착 미사일에 대응력을 갖추어야 한다. 일본은 이미 20년 전부터 북한의 미사일에 대응할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해놓은 상태이다. 북한은 한국을 요격할 충분한 여건을 갖추었으며 북한 핵 공격 시 피해액이 100조원인 것은 감안하면 사드 배치 시 미사일 한 대당 1조원이 드는 것은 경제적 측면으로 따질 문제가 아니다. 전국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약 6대 정도가 필요하며 모든 미사일 방어망은 한국 돈으로 사들여 오기 때문에 자국 것이 된다. 또한 동북아의 방어망은 모두 같은 정보를 토대로 이루어지고, 미사일이 발사되었을 때 우선 미국 위성이 그것을 포착하고 나면 한국과 일본이 각각 탄두나 궤도 추적을 하게 되어 있다. 이것은 오산 미군부대가 공격당할 시 한국이 미사일을 요격하는 시스템으로 사드 도입을 한다 해서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포함되지 않으며 오히려 미국의 미사일 방어 정보망이 한국에 편입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사드와 함께 들어오는 엑스밴드 레이더와 관련하여

18) 조문규, "중국 싱크탱크, "중국은 한국의 사드(THAAD)도입 반대한다.", 중앙일보, 2014.10.26.

19) 강찬호, "주한 중국대사 "한국에 사드 배치 매우 우려", 중앙 SUNDAY NEWS 401호, 2014.11.16

20) S-400은 '트리움프(승리)'로 불리고 2007년부터 러시아군에 실전 배치됐으며, 현재 지구상에 배치된 지대공미사일 중 가장 성능이 뛰어나다는 평을 듣고 있다. 적의 중단거리 탄도미사일과 크루즈미사일, 전투기 및 폭격기 등을 공중 저격할 수 있다.(박선호, 2014.11.28)

21) 박선호, "한국 싸드 반대하더니...中,첨단 미사일방공망 계약", 문화일보, 2014.11.28

중국은 이 레이더의 포괄 범위에 중국이 포함되어 한국에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이 주장하는 엑스밴드 레이더가 산둥반도를 포함 하는 것이 맞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여 사드 배치를 한다는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 사드는 오로지 한국의 안보만을 생각하며 들여와야 하며, 그 동안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에 힘쓰지 않았기 때문에 사드 배치에 대해 왈가왈부 할 자격이 없다.²²⁾

중국은 한미 간에 사드 배치와 관련한 어떠한 공식적인 협의를 한 바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공개적으로 사드 배치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고 사드를 배치할 경우 한중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하면서 무기 도입과 개발에 힘쓰고 있다. 이를 보아 중국 또한 미국을 견제 하고 있으며 사드 배치를 빌미로 군사력 증강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북한의 미사일 위협

북한의 미사일이 수도권에서 120km 정도 떨어진 발사기지에서 발사될 경우 수도권에 도착하는 시간을 계산하면 서울까지 3분 30초, 수원까지 4분 10초, 원주까지 4분 50초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한다. 북한은 미국의 개입을 축소시키기 위해 한국에 기습적으로 미사일 공격할 가능성이 크고, 노동미사일 및 대포동 미사일은 한반도 및 주변의 전략목표를 모두 타격할 수 있으며 대포동2호는 일본, 괌의 미군기지도 넘는 사정거리를 가졌다.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의 존재는 불명확하지만 소규모 고풍탄, 화생방 탄두를 장착하여 알래스카, 하와이, 미국 서부의 일부까지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²³⁾ 북한 스커드미사일의 경우 발사 각도를 조정하면 고도 40~160km, 사거리 600km 안팎으로 줄일 수 있어 근거리 공격이 가능한 만큼 한국 타격이 충분히 가능하다.

북한이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하면 한반도에는 핵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 북한은 1950년 6·25 전쟁 때 핵개발을 시작해 지속해 오다가 1985년 NPT(핵 확산 방지 조약 기구)에 가입을 했지만 독일의 통일로 공산 국가들이 하나씩 없어지면서 체제 유지에 위기를 느껴 핵 개발을 계속 했다. 90년대 들어서 소련이 붕괴되었고 남한과 소련, 남한과 중국이 수교를 하면서 국제적으로 고립되었고 안보에 더 위협을 느꼈다. 때문에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채택했지만 핵 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도 하였다. 결국 2003년 NPT 탈퇴를 한 후 2006년 1차 핵 실험, 2009년 2차 핵 실험, 2013년 2월 3차 핵실험을 하였다. 그 동안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남북한과 주변4개국(중,러,미,일)이 6자 회담을 개최했지만 어떠한 해결책도 강구해내지 못했다. 북한은 중국에게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미국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하지만 북한의 미사일은 충분히 위험하다는 판단을 내려 동아시아에 지속적으로 MD구축에 힘쓰고 있다.

3) 한국 미사일 방어 체계의 한계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는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한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킬체인(Kill-chain)과 KAMD구축하면서 시작되었다. 킬체인은 표적을 1분 안에 탐지한 뒤 1분 안에 좌표를 식별하고, 3분 안에 무기를 선정해 타격하는 시스템으로,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을 사용하려는 징후가 짙을 경우 발사 직전에 이를 제압하는 것이다.²⁴⁾

22) 강찬호, "北, 수년 내 서울 타격 핵미사일 보유...사드 빌려라도 와야", 중앙 SUNDAY NEWS 401호, 2014.11.16

23) 이민우, 『북한 핵미사일 방어 체계 발전 방향 연구-해상 미사일 방어 체계를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2013

24) 황혜경, "전략권 전환 조건 '킬 체인'·'KAMD'란?", YTN, 2014.10.24

KAMD(Korea Air and Missile Defense)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로 지상 10~30km의 낮은 고도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방어체계이다. 우선 킬체인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탐지한 후, 선제공격을 통해 미사일 발사를 원천적으로 막는다. 킬체인을 이용한 선제 타격에 실패할 경우, 한국군은 KAMD를 활용해 북한의 미사일 요격에 나서는 방식이다.²⁵⁾

하지만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는 미국MD에 비해 많이 부족한 편이며 북한과의 인접한 지리적 특징을 고려하여 구축 계획이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북한이 아직 소형 핵탄두를 개발하지 못했지만 만약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해 핵을 탑재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면 이것을 킬 체인과 KAMD로 무력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북한의 미사일은 이동식발사대(TEL)을 이용해서 발사할 수 있는데 이것은 언제 어디서든 발사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사전 탐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 북한이 TEL을 이용해 10여 차례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때 한국군은 발사 전 탐지에 대부분 실패했으며 보유할 타격무기로도 TEL을 파괴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다.²⁶⁾ TEL을 사전 감지할 수 없는 킬 체인은 안보 체계로 적절하지 않으며 구축한다 하더라도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킬 체인과 KAMD 구축 목표는 2022년이며 자주국방 능력 향상을 바탕으로 한 전작권 전환 조건이다. 2022년 까지 모두 구축하기 위해서는 약 17조 원이 예상되며, 2014년 한 해 동안 1조 천억 원이 투입 된 것을 감안하면 목표 기한 내에 구축하기 위해서는 매년 지금보다 두 배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만약 기한 내에 구축하지 못한다면 전작권 반환 기한 또한 더 늦춰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현재 이러한 한국형 미사일 방어시스템은 구축이 미완성이고 완성 기한이 뚜렷하지 않으며 완성 된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핵미사일을 완벽히 방어 할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 또한 군 기지 등 주요 시설 방어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이 핵을 쏠 경우 일반 국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을 것이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의 한계로 인해 한국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사드를 배치해야 하며, 사드가 평택 미군기지에 배치될 경우 사거리가 200km에 달하기 때문에 수도권과 중부지역 2500만 명이 보호막 안에 들어갈 수 있다. 현재 한국의 미사일 방어 범위는 40km 이하 저고도에만 국한되기 때문에 미국이 미군 병력 보호를 위해 사드 배치를 원한다면 한국에게도 방어망의 한계를 채울 수 있는 만큼 이득이 될 수 있다.

2. 신중론(반대)

1) 한·중 관계 회손

한반도의 안보를 위해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과는 반대로 한국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이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사드를 배치함으로써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 회손에 따른 국가 손실을 걱정하는 입장이 있다.

10월 11일 워싱턴 대사관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호영 주미대사 또한 한반도 사드배치와 관련한 어떠한 공식협정도 들어오지 않았으며 협의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신경수 주미대사관 국방부관도 미국과 사드의 한반도 배치문제에 대해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협의한 적이 없고 미국이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해 어떠한 결정을 내린 적이 없으며 한국도 사드

25) 정광재, "킬체인·KAMD 구축이 뭐기에?", MBN, 2014.10.24

26) 김호준, "킬 체인·KAMD로 북핵·미사일 위협 대비 가능할까", 연합뉴스, 2014.10.26

구매에 대해 협의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²⁷⁾ 이러한 발표는 한국 내 여론과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를 의식한 결론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 될 경우 중국과의 관계에 손상을 입힐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한반도의 특성상 사드가 한국 방위에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없지만 미국에게는 전략적 가치가 큰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국 내 사드 배치 찬성 입장과는 달리 유사시 그 운용에 있어 한국이 미국의 요구와 압력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평가한다. 이러한 중국의 판단은 대한민국 정책에 전환점이 될 것이고, 중국의 잇단 경고성 발언들은 북한과 함께 한국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전환 할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 수 있다. 또 중국이 엑스밴드 레이더의 운용으로 인해 자신들의 핵심 이익이 침해당한다는 판단이 서면 이를 전략 무기의 첫 타격 대상으로 설정할 수도 있다. 사드는 원래 유럽에서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배치되기 시작한 체계였다. 때문에 러시아도 중국과 함께 한반도의 사드배치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러시아가 중국의 정책 변화에 발을 맞추는 경우 한국은 막대한 외교·안보·경제적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²⁸⁾

다양한 측면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의 안보라는 것은 반드시 군사적인 측면에서 미국과의 관계, 남북관계만의 문제가 아니다. 현재 중국은 한국의 교역량 1위로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엄청나다. 두 국가의 교역량은 한국이 미국, 일본과 교역하는 양보다 많으며 최근 FTA타결로 교역량이 더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중국과 마찰이 생긴다면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이 있을 수 있다.

나아가 정치적으로는 안정적인 남북관계를 위해서라도 중국이나 일본의 동북아 균형에 힘써야 한다. 사드 배치와 같은 군사적 위협으로 주변국을 자극 하는 것은 한반도 안보에 더 큰 위협으로 되돌아 올 수 있다. 한국과 미국 간에 안보협의를 할 때에는 이러한 조건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협의해야 하며 꼭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제공해야 한다.²⁹⁾

2) 실효성 문제

사드 체계는 요격미사일이 100km 이상의 고고도에 도달하면 본체와 분리된 탄두에서 캡슐이 열리며 64kg 무게의 작은 킬 비히클(kill-vehicle)이 나와 적의 미사일 궤도에 맞춰 초속 10km의 속도로 비행하며 요격한다. 적의 미사일 궤도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지점과 상당한 거리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지리적으로 인접한 북한의 미사일을 포착하기에 한국의 거리는 너무 짧다.

북한이 만약 한국에 대해 핵공격을 할 경우 현재로서는 사거리1300km인 노동미사일이 가장 적합하다는 의견이 많다. 북한이 스커드미사일(사거리 300~800km)에 실을 정도의 핵탄두 소형화 기술은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고 대포동 미사일은 사거리 1500km이기 때문에 근접지역인 한국을 공격하기는 불가능하다.³⁰⁾ 지리적으로 인접한 북한과의 전쟁에서 사드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일부러 미사일을 상당히 높은 각도로 쏘야 한다. 높은 각도에서 미사일을 쏘면 돈이 비싸고, 탄착지점에 맞는 정밀도가 낮아진다. 북한은 고도가 높은 중거리 노동 미사일을 사용할 이유가 없으므로 미국의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을 견제한 무기 도입이 아니라는 근거가 된다.

또한 북한의 미사일 개발 현황이 미국의 확대 해석이라는 의견도 있다. 미국은 북한이 핵미사

27) 조철환, "주미 대사 "사드, 무기체계만 논의... 배치 협의 없었다"", 한국일보, 2014.10.12

28) 김흥규, "사드 배치는 국제 이슈, 미·중·러 타협 유도가 우선", 중앙SUNDAYFOCUS 제401호, 2014.11.13

29) 김광진, "[인터뷰]한반도 '사드배치' 논란과 군간부 복지예산 등 국방위 국감 이슈①", KBS1radio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 2014.10.20.

30) 최익재, "사드로 북핵 노동미사일 방어vs명중률 90%는 근거부족", 중앙SUNDAYFOCUS 제 401호, 2014.11.13

일을 발사할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지만 북한의 미사일 핵탄두 장착 능력에 대해서 아직 장거리 미사일에 탑재할 소형의 핵폭탄을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의견들도 있는 것이다. 확실치 않은 상황 하에서 미국의 한국 사드 배치는 북한의 소형 핵폭탄 제조 완성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위협이 될 수 있다. 또한 사드 미사일은 한 발당 100억에서 110억 정도로 측정된다. 사드 구성체 모두를 들여 1개 포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2조원에 달하고 남한 전역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2~4개 포대의 사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격은 수조원에 달한다.

사드는 2009년 미국 내에서도 불확실한 성능과 예산문제로 타격체의 추가 개발·시험을 중지한 바가 있다. 2015년에는 미사일방어로 85억 달러의 예산을 책정하였고 그 중 9950만 달러의 타격체 개발예산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동안 사드에 탑재된 타격체의 성능이 부실함을 인정하고 새로운 타격체를 개발하기 위한 비용이다.³¹⁾ 만약 이러한 노력으로 사드가 개발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그 성능이 확실하지 않으며 한반도에 배치하는 것은 비효율 적이므로 예산만 낭비하게 될 것이다.

3) 미국의 패권(방산기업)

미국은 세계 최대 무기 수출국으로서 군수업체로는 세계 최고의 군수업체 록히드마틴(Lockheed martin)을 비롯해 보잉(Boeing), 노스롭그루먼(Northrop Grumman), 제너럴 다이내믹스(General Dynamics), 레이시온(Raytheon) 등이 있다. 록히드마틴의 종업원 수는 14만 명이 고 기업의 총매출 중 군수물자 매출은 334억 3천만 달러이다. 보잉사의 종업원 수는 15만 7천 명이고 군수물자 매출은 323억 달러, 노스롭그루먼의 종업원 수는 12만 명에 군수물자 매출 270억 달러, 제너럴 다이내믹스 종업원 수는 9만 1천명에 군수물자 매출 255억 9천만 달러, 레이시온의 종업원 수는 7만 5천명으로 군수물자 매출 230억 8천만 달러에 달한다.³²⁾ 미국에서 군수와 직접 관련된 인력은 약 235만 명으로 연관 산업까지 범위를 확대하면 그 수는 가능하기 힘들 정도로 증가한다. 미국의 재정 악화로 인해 앞으로 10년간 1조 2000억 달러의 군사비를 삭감할 것이라 발표했고 이에 따라 직접 연관 된 20만개, 연관 산업 일자리는 120만개 없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군수 업체의 위협으로 인해 국외 무기 수출 증가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미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북핵 견제를 빌미로 미국의 MD 확대는 계속 될 것이고 이것은 동북아 전체의 안보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³³⁾ 미국의 군수 업체의 침체는 미국의 경제 침체로 이어질 수 있을 정도로 큰 규모이며 미국 경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군수 업체의 활성화는 미국 경제 부흥을 위한 필수조건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해외에 지속적으로 무기 수출을 하고 있고 규모는 세계 최대로 록히드 마틴과 보잉사가 매년 매출 1, 2위를 차지하고 있다. 2010년 미국이 한국 등 개도국에 수출한 무기는 약 86억 달러로 전 세계 시장 점유율 39.2%에 달한다. 이것은 2위를 차지한 러시아의 점유율 21.4%를 훨씬 웃도는 수치이다. 개도국과 선진국을 포함해서는 214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수출해 시장점유율이 52.7%를 기록했다.³⁴⁾ 특히 2010년 미국이 한국에 판매한 무기는 관련 부품, 건설, 지원, 훈련 등을 포함해 모두 6억 달러 규모로 집계됐다. 이것은 개도국 가운데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 이집트, 알제리, 이스라엘, 대만에 이어 개도국 가운데 액수기준으로

31) 김종대, 「'사드 한국 배치'라는 유명논쟁」, 동아시아재단 정책논쟁, 2014.11.11

32)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military&wr_id=43399, (검색일 2014.11.27)

33) 박현, "미국 방산업체의 나비효과", 투코리아 디펜스21, 2012.09.21

34) 연합뉴스, "한국, 작년 美재래식무기 수입 6억달러", 네이버뉴스, 2011.09.29

8위에 해당한다. 같은 년도에 한국은 미국과 100억 달러의 구매 계약을 체결했고 전 세계 7위에 해당하는 규모이다.³⁵⁾

2014년 11월 한국이 록히드마틴사의 F-35를 지나치게 높은 비용으로 구매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미국 군수업체의 영향력에 예속되어 있음이 드러났다. 미 국방부의 자료에 따르면 같은 비행기를 한국은 1,211억원(1억861만 달러)에 미국은 9,570만 달러(1,067억원)에 사기로 했다. 한국 국방부가 록히드마틴사로부터 F-35기 40대를 구매하기 위해 국회에 요청한 예산은 무려 7조 3,418억 원으로 천문학적인 액수이다. 한국의 1년 예산이 300조인 것에 비하면 무기 구입에 과한 투자를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분석 없이 미 국방부 보다 더 일찍 무기 구매를 확정짓는 것은 ‘한미동맹’의 영향력과 미국과의 지속적인 우호 관계를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 한미 양국이 전시작전권 환수를 무기한 연기하면서 한국군 능력 강화를 전제로 삼았다. 미국은 이를 빌미로 한국에 더 많은 무기 배치를 원할 것이며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³⁶⁾ 한국은 미국산 무기를 수입 할 때 최신 무기가 아닌 이미 미국에서 10년 넘게 사용하고 수명을 다한 미국산 중고 무기를 비싼 값에 사온다. 한국이 이러한 무기를 사들이는 것은 한국의 안보를 위한 것이기 보다는 미국과의 관계 지속을 위한 것이며 한국의 국방이 미국의 손에 좌지우지 된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다.

Ⅶ. 한반도 안보를 위한 방안

1. 자주적 안보

한반도의 안보를 위해서는 중국과 미국의 영향력을 탈피해 자주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한반도 안보를 위해서 미국과의 안보동맹, 중국과의 교역 사이에서 무조건적 우선순위로 선택해야 하는 것은 없다.

미국과의 안보 동맹이 한국에게 확실한 군사적 안보를 가져다주지는 않는다. 현재 오바마 정권은 한국과의 안보동맹 회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위한 안보 전략이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뚜렷한 전략이 부재한 상태에서 한국의 안보를 미국에게만 맡긴다는 것은 위험한 선택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에 이어 다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연기했다. 이에 대해 한국은 아직 안보 체계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작전권 전환 연기가 당연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한반도는 휴전상태인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쟁 때 작전 권한을 갖지 못하는 것은 주도적으로 전쟁을 이끌어 나갈 수 없을 것이고 작전권을 가진 미국이 오로지 한국만을 생각하여 전쟁을 펼칠 일은 없을 것이다. 또한 미국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여 한·미·일 안보 협력을 추진 중이다. 이런 삼각관계는 북한에게 위협이 될 수 있으며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 개발을 하는 주요 원인이 된다. 미국과의 안보 협력이 강화 될수록 북한이 한국을 미국의 속국으로 여길 가능성이 크고 남한과 북한 독자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기회는 점점 줄어들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군사적 안보에 더 힘쓸 것이고 그만큼 한반도 비핵화뿐만 아니라 통일 또한 더 멀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 안보 동맹에서도 확실한 자주권을 가지고 평화적인 한반도 미래를 건설해야 한다.

35) 연합뉴스, "한국, 작년 美재래식무기 수입 6억달러", 네이버뉴스, 2011.09.29

36) 민중의 소리 여론광장, "사실언제까지 미국 군수업체의 '봉'으로 남을텐가", <http://www.vop.co.kr/A00000809229.html>, (검색일 2014.11.27)

한편 한국은 중국과 FTA를 타결했다. 중국은 한국이 미국으로 치우치는 것을 경계해 FTA를 맺었을 가능성이 있다. 중국 입장에서 한중FTA는 한중일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으로 아시아에서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수단이자 미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는 수단이다. 또한 한중FTA는 돈독한 한중 경제 관계를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안보에서 생길 수 있는 불신을 경제적 파트너십을 강화해 한중 관계를 공고하게 유지시켜 줄 수 있어 안보·협력 관계의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한반도가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관계를 이용해 한국은 중국과의 경제 교역, 안보·협력에서 분명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중국과 미국의 안보 갈등은 북한 문제를 두고 더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 포위, 압박 외교 전략을 펼치고 있다. 괌,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에 미사일 방어 체계를 배치하고 군사 안보 동맹을 맺고 있는 상황을 보면 중국을 견제하고 있음이 분명히 드러난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빌미로 한국에 사드 배치하는 것에 대해 중국이 견제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중국이 북한과 동맹국이자 6자회담 의장국으로써 북한 비핵화를 강력히 추진하지 못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미국이 아시아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막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에 유일한 우방국인 북한에게까지 강경한 태도를 취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기적인 행태다.

한편 중국은 사드 배치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펼치면서도 자국 내에 무기를 사들이는 모순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현재 중국이 가지고 있는 탄도 미사일 2000여발 이상 중 1000여발이 한반도를 충분히 포함하는 사거리를 갖고 있다. 이것 또한 한반도에 위협일 수 있으며 중국이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것은 이미 중국에 배치되어 있는 탄도미사일이 무력화 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일 수 있다. 그리고 중국은 이러한 경쟁 관계를 빌미로 러시아에서 지속적으로 최첨단 무기를 수입하고 있는 행동도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이다. 한반도는 여전히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미국은 주한미군을 철수하지 않을 것이고 중국은 최근 '북한포기론'이 생겨나고 있지만 절대 북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이 북한을 포기한다면 제3국으로 넘어갈지도 모르고 아직 준비되지 않은 통일로 인해 한반도가 위협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에서 일어난 위험은 중국에게 위협으로 작용함은 당연할 것이다.

이렇듯 중국과 미국은 자국의 안보를 위해 한반도를 이용하고 있다. 한국은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해 미국과 중국에서 벗어나 자주적으로 한반도 안보를 구축해 나아가야 한다. 완전히 벗어난 독립적인 자주는 힘들겠지만 한반도의 미래를 중국과 미국의 손에 맡겨서는 안 되며 우선 통일을 향한 확고한 노선을 설정해 자주적 통일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주권을 가지고 한반도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자 한반도의 안보를 위한 가장 평화로운 방법일 것이다. 한국은 북한의 위협에서 뿐만 아니라 주변국들의 경쟁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2. 사이버 안보

한반도에서 중·미간 무기 배치를 통해 패권 경쟁이 첨예하게 드러나고 있지만, 앞으로는 군수 무기를 사용하는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판단된다. 군사적 방면에서만 보면 두 국가는 곧 전쟁을 할 것 같지만 경제적 방면에서 보면 절대 풀 수 없는 끈으로 맺어져 있는 관계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두 국가는 자국을 위해서라도 절대로 군사적 전쟁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대신 세계는 이제 보이지 않는 무기로서의 전쟁 시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이지 않는 무기

라는 것은 사이버 상에서의 전쟁으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인터넷 보급 확대로 인해 새로 생겨난 사이버 공간에서의 전쟁을 사이버전쟁이라고 한다. 이것은 낮은 진입장벽과 익명성, 취약성의 비대칭적인 특징 때문에 북한도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를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쉽게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저비용으로 중요한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³⁷⁾

전 세계는 사이버 전쟁을 치르고 있고 각국은 정예 사이버전 부대를 만들어 주요국의 정치·경제·군사정보를 빼돌리거나 사회 불안을 조장한다. 미·중, 미·북, 프·독 간 전쟁이 치러지고 있는 긴박한 상황은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의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북한은 일찍이 핵·미사일 개발과 함께 사이버공간의 중요성을 깨닫고 최첨단 정보기술을 동원한 사이버전 능력을 키워왔다. 이것은 한국에 위협이 되어 한국의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 2003년 인터넷 접속대란, 2009년 2011년 디도스(DDoS)³⁸⁾ 공격 및 농협 전산망에 대한 사이버 공격 등이 생활의 불편을 넘어 직접적인 피해를 초래하였고 이의 일부분은 북한군의 소행임이 드러났다. 또한 최근 군 관련 기밀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해킹 시도가 반복되어 군 내부 폐쇄망(인트라넷)도 안전하지 못하다.

북한군이 일찍부터 사이버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사이버무기와 전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대남 사이버 공격기법 또한 정교하고 복잡해지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의 사이버전 대비 전략과 능력은 부족하다.

한국은 사이버전의 최근 현대전에서 시행되었던 사이버전의 사례와 세계적인 사이버전 동향을 교훈삼아, 북한군 사이버전 능력과 목표, 위협 등을 심층 깊게 분석하여 앞으로 한반도에서 발생 가능한 사이버전의 예상 시나리오를 분석하여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사이버전 정책과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³⁹⁾ 구체적으로는 우선 사이버전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이 시급하다. 공격의 중심점을 알아내 원천봉쇄하는 방식으로 공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민간 및 공공기관의 피해를 줄여야 하지만 한국은 아직 이러한 기술을 갖고 있지 못하다. 또한 더 큰 조직의 사이버 군대와 전쟁을 책임 질 높은 직위의 책임자가 필요하다. 2013년 소장이 지휘하는 사이버 사령부가 만들어졌지만 한국은 IT규모가 비교적 크기 때문에 중령 이상이 지휘하는 사령부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사이버안보를 위한 민간 사이버 안보를 담당하고 있는 인터넷진흥원과 군 조직 사이버사령부의 협력 및 협조가 필수적일 것이고 사회 각종 분야에 걸쳐 다각화로 안보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VI. 결론

고성능의 미사일인 사드가 한국에 배치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중국의 반대 의견과 한국 내 찬반 문제가 고조되었다.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겠다는 의도를 밝혔고 한국 정부는 미국의 공식·비공식적인 제안이 없었으며 어떠한 협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 가능성을 기정사실화 하

37) 조성렬, 『북한의 사이버전 능력과 대남 사이버위협 평가: 한국의 사이버안보를 위한 정책적 함의』, 북한연구학회보 17권 2호, 2013

38) '분산 서비스 거부' 또는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이라고 하며, 여러 대의 공격자를 분산 배치하여 동시에 동작하게 함으로써 특정 사이트를 공격하는 해킹 방식의 하나로 공격 목표인 사이트의 컴퓨터 시스템이 처리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분량의 패킷을 동시에 범람시킴으로써 네트워크의 성능을 저하시키거나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방식, [네이버 지식백과]doopedia(두산백과)

39) 정유석, 『북한의 사이버 위협 능력과 한국군 대응에 관한 연구』, 상지대학교 안보학과 정치학, 2013

며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다. 사드와 함께 배치되는 엑스밴드레이더의 탐지 범위가 중국의 일부 영토를 포함하기 때문에 중국은 미국의 사드 배치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레이더의 탐지 범위는 중국을 포함하고 있으며 미국은 최근 아시아 국가들과 안보 협력 관계를 맺고 동맹을 맺고 있는 것으로 보아 중국이 아시아에서 영향력 확대 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하다. 미국은 북한을 핑계로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려 하는 것이고 중국은 이에 대응해 무기 개발과 도입에 박차를 가하여 군사력 증강에 힘쓰고 있다.

한국 내에서는 한국 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며 북한의 핵·미사일의 성능이 한국에 충분히 위협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켄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사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사드의 도입은 한·중 관계를 회손 시킬 수 있으며 배치를 한다 하더라도 한국 전체가 북한 핵 위협에서 완전히 안전하지 않고 배치 비용에 비해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이 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현재 미국은 경제 발전을 위해 한국을 무기 판매 도구로 이용한다고 보고 있다.

한편, 한국은 2022년 까지 Kill-chain과 KAMD 구축을 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미국은 한국의 군사력 증강을 조건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에 동의했다. 한국형 방어체계의 한계는 사드 배치의 주된 원인이며 한국은 미국의 MD와는 다른 한국형 방어체계를 위해 구축하고 있지만 결국엔 미국의 MD에 편입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불식시키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국은 안보 능력 부족으로 전시작전권을 연기했고 이에 북한은 미국의 패권에 위협을 느껴 계속해서 핵·미사일 개발에 착수하고 있다. 서로가 자신의 안보를 위해 군사력 증강, 무기 개발에 힘쓰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안보딜레마는 더 큰 군사적 위협이 될 수 있고 전작권 연기를 통한 자주권 전환 실패는 북한과 단독으로 안보를 협의 할 수 없는 약점이 될 수 있다. 미국 입장에서 사드는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한국에 MD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이자 아시아 재진출(pivot to Asia) 전략을 펼칠 수 있는 선택이다. 중국도 미국을 견제해 후진타오 시대부터 군사력 증대와 현대화에 힘쓰고 있으며 최근에는 '신형대국관계'를 내세워 국방력에 있어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이러한 두 강대국의 군사적 패권 경쟁 속에서 전략적 도구로 전략할 것인지 그 가운데서 이득을 취할 것인지는 한국의 태도에 달려있다.

한국의 사드 배치 문제가 중·미 관계에 있어 가장 화두로 떠오르면서 배치가 곧 임박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것은 사실상 국가적 수준의 결정이며 대통령 수준의 결정이기 때문에 관계자들도 쉽게 확인할 수가 없는 문제이며 한국과 미국 정부는 두 국가 사이에는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사실상 논의가 필요 없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사드 문제가 가시화 된 이유는 미국 측면에서 보면 미사일 방어에 인색하게 예산을 책정한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군부의 불만이 고조가 된 때에 마침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까지 도래하여 사드 배치에 대한 '희망적 사고(wishful thinking)'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또한 한국 입장에서 보면 미국의 MD구축에 있어 한국이 소외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한반도의 중국화'에 대한 견제의 필요성을 절감한 한국 내 일부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사드 논쟁을 부추겼다는 의심도 나온다. 더구나 박근혜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을 무기한 연기하면서 사드의 한국 배치 문제를 정리하지 못하고 미국의 눈치를 살피며 모호한 태도를 취했다는 것도 사드 배치 논란이 부각된 이유 중 하나일 수 있다.⁴⁰⁾ 이러한 한국의 애매모호한 태도는 한·중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미국은 한국을 전략적 이용 대상으로만 볼 수 있다.

이러한 강대국 사이에서 평화로운 한반도가 되기 위해서는 한국이 자주권을 가질 필요가 있다.

40) 김종대, 「'사드 한국 배치'라는 유명논쟁」, 동아시아재단 정책논쟁, 2014.11.11

미국은 현재 한반도에 대한 안보 전략이 부재하기 때문에 한반도의 안보를 미국에만 의지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전략권 회수를 통해 군사적 주권을 가져야 한다. 중국과는 FTA타결을 통해 경제적으로 협력이 강화되었고 이것은 안보 협력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런 관계를 이용해 중국과의 안보 관계에서도 자주적으로 목소리를 내야한다. 자주권을 가져야만 독자적인 안보 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안정적이고 평화적인 통일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하면 자국에도 큰 피해가 가는 것도 분명하기도 하고, 세계의 글로벌화로 중국과 미국, 한국과 중국, 한국과 미국 모두 경제적으로 협력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실제로 군사적 전쟁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는 사이버 안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미 사이버 상에서 중·미 갈등이 드러나고 있으며 한국도 이에 대비해 인재 양성 등 사이버 안보 체계 구축을 시작해야 하고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참고문헌

- 김태완, 『미국과 중국사이의 한국 : 역사의 교훈 서설』, 영남국제정치학회보 제 16집 1호, 2013, pp.77~99.
- 김재환, 『북한 미사일 위협과 한국의 MD 추진방향』, 상지대학교 평화안보대학원, 2009, p.7
- 최정우,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2013, p.12
- 채수민,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전략 연구 : 기술 및 능력을 중심으로』, 북한대학원대학교, 2013, p.9
- 김민구,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발전방안 연구』, 한성대학교 국방경영학과, 2013, pp.4~5
- 김의근, 『한국군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방향에 관한 연구-적극 방어 개념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2011, p.15
- 김태완, 『일본·한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비교연구』,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2011, p.21
- 김민구,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발전방안 연구-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을 위한 선결조건을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대학원 국방경영학과, 2013, p.76
- 이민우, 『북한 핵미사일 방어 체계 발전 방향 연구-해상 미사일 방어 체계를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2013
- 조성렬, 『북한의 사이버전 능력과 대남 사이버위협 평가: 한국의 사이버안보를 위한 정책적 함의』, 북한연구학회보 17권 2호, 2013
- 정유석, 『북한의 사이버 위협 능력과 한국군 대응에 관한 연구』, 상지대학교 안보학과 정치학, 2013

- 유용원, 「사드 논란의 진실: 중국의 제1 공격목표가 될 만큼 위협적인가? 北핵탄두 미사일 요격용으로 효과적인가?」, 주간조선 조선뉴스프레스, 2014.10.06.
- 장철운,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THAAD):'사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IFES현안진단, 2014.
- 김종대, 「'사드 한국 배치'라는 유명논쟁」, 동아시아재단 정책논쟁, 2014.11.11.

- 윤정호, "미 국방부장관 "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포대 한국배치 검토"", 조선일보, 2014.10.1.
- 황혜경, "전작권 전환 조건 '킬 체인'·'KAMD'란?", YTN, 2014.10.24.
- 정광재, "킬체인·KAMD 구축이 뭘기에?", MBN, 2014.10.24.
- YTN, "국방부 "미국과'사드'배치 협의한 적 없어", YTN·YTN PLUS, 2014.10.1.
- 조철환, "주미 대사 "사드, 무기체계만 논의... 배치 협의 없었다"", 한국일보, 2014.10.12.
- 박현, "'한국군 군사능력'내세워 사드 한반도 배치 엿볼듯", 한겨레뉴스, 2014.11.04.
- 정우, "中, 사드 韓배치에 신경질적 반응 이유는...", 뉴데일리, 2014.11.10.
- 조문규, "중국 싱크탱크, "중국은 한국의 사드(THAAD)도입 반대한다."", 중앙일보, 2014.10.26.
- 강찬호, "주한 중국대사 "한국에 사드 배치 매우 우려"", 중앙 SUNDAY NEWS 401호, 2014.11.16.
- 홍세미, "윤후덕, 사드 배치는 미·중·러와 얽혀있는 사안", 시사ON, 2014.10.19.
- 강찬호, "北 수년 내 서울 타격 핵미사일 보유...사드 빌려라도 와야", 중앙 SUNDAY NEWS 401호, 2014.11.16.
- 김호준, "킬 체인·KAMD로 북핵·미사일 위협 대비 가능할까", 연합뉴스, 2014.10.26.
- 김홍규, "사드 배치는 국제 이슈, 미·중·러 타협 유도가 우선", 중앙SUNDAYFOCUS 제401호, 2014.11.13.
- 박현, "미국 방산업체의 나비효과", 투코리아 디펜스21, 2012.09.21
- 연합뉴스, "한국, 작년 美채래식무기 수입 6억달러", 네이버뉴스, 2011.09.29.
- 박선호, "한국 싸드 반대하더니...中,첨단 미사일방공망 계약“, 문화일보, 2014.11.28.
- 김태형, "사이버戰은 제5세대 전쟁이자 블랙 스완", 보안뉴스, 2014.11.28.
- 민중의 소리 여론광장, "[사설]언제까지 미국 군수업체의 '땡'으로 남을텐가", <http://www.vcpco.kr/A00000809229.html>, (검색일 2014.11.27.)

- [네이버 지식백과] THAAD 미사일 [theater of high altitude area defense missile]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 <http://blog.naver.com/hhj666?Redirect=Log&logNo=30014123997> (검색일 2014.11.27)
- <http://najidoja.blog.me/220179804196> (검색일 2014.11.28)
-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military&wr_id=43399, (검색일 2014.11.27.)

